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발자취 - 03

- 목화 전래로부터 8·15 해방까지 -

5. 조선조 말기의 면방직

말기의 조선조는 세도정치의 장기화(1805~1975년)에 따라 나라 정치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각종 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등한히 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전체와 절량농가의 발생(1806~1850년) 및 농민반란(1860~1865년) 등으로 생산의욕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복궁 중건 등으로 국가 재정이나 백성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의 과잉 발행(1865~1875년)에 따라 유통경제는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이 당시에 구미의 열강인 불(佛), 영(英), 노(露), 보(普 : 러시아), 미(美), 독(獨) 등이 우리나라에 문호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국력의 쇠퇴로 서양의 이질문화나 교류를 받아들이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또한 천주교와의 마찰도 겹쳐 쇄국정책을 고수하면서 구미 열강의 국교와 통상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화하게 되었으며, 실학파의 활동마저 장기적인 탄압(1785~1886년)으로 선진산업기술의 도입이나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이 부진하게 되었다.

그간 공식, 비공식 절차로 구미 열강과의 접촉을 여러 차례 가져오던중 무력을 앞세운 1866년의 병인양요(丙寅洋擾), 1871년의 신미양요(辛未洋擾) 등으로 위협수위를 겨우 넘기면서 쇄국정책을 힘겹게 고수하고 있었는데, 고종 13년(1876년)에 일본 군함 7척이 인천에 무단 침입하여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개항 요구에 마침내 굴복하여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 한일수호조약이라고도 함)을 맺게 되자, 붓물이 터진 듯 구미 열강과 수호관계를 맺게 되

었다.

쇄국정책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섬유수공업은 그간 실학과로부터 산업육성 시책의 권고가 있었으나 생산장려 및 기술개발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수재, 한재(旱災) 등 천재와 국정문란으로 농민들의 생산 의욕만 상실케 만들었다.

이 당시 면직물의 유통을 보면 서울의 면포전에서 당진목, 해남목, 고양목, 강목 상고목(商賈木), 군포목(軍布木), 공물목(貢物木), 무녀목(巫女木) 등이 유통되었다고 한다. 당시 영국은 영국 및 인도에서 생산되는 면제품 등을 팔기 위하여 동양시장을 확장코자 주력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19세기 중엽까지 방직이 농가의 부업 또는 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천주교를 탄압하고 쇄국정책을 쓰면서 구미 여러 나라들의 천교 요구를 거절해 왔었는데, 마침내 1854년 미국의 군함에 의한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고, 1858년 미, 영, 불, 화, 노 등 구미 여러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고 나가사끼(長崎), 요코하마(橫濱), 하코다테(函館)의 3개 항구를 개항하자 고도로 발달한 구미의 각종 문물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관세 자주권을 지키지 못했듯이 일본도 관세없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양질의 면사, 면포가 일본의 수공업제품을 제압하고 침투해 들어가 소비자들을 현혹시켰으나 일본은 서둘러 유럽의 근대화된 기계와 기술을 직접 도입하여 근본 문제의 해결을 꾀하였다.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면방공장은 도꾸가와막부시대의 1867년에 규슈의 남쪽 끝 가고시마에 설립한 가고시마방적소였다.

사쓰마번주인 시마즈가 견잡을 수 없게 쏟아져 들어오는 영국이나 인도제 면사, 면직물을 막기 위하여 설립한 이 공장은 영국에 유능한 젊은 청년을 파견하여 방적, 제직기술을 습득케 하면서 방적기 3,648추, 역직기 100대를

도입,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나 경영이 미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도 매우 불리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계획이 비록 실패하였으나 이에 자극되어 1870년에는 오사카에 사카이 방적소, 1872년에 다키노가와 방적소가 설립되었다. 그 후 메이지 정부가 부국강병정책의 하나로 방적업을 적극 보호 육성하자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1882년에는 10,500추 규모의 대규모 민영기업인 오사카방적회사가 설립되어 주야 2교대 작업에 성공하자, 이를 본받아 미에(三重)방적, 가네가후찌방적 등 여러 방적회사가 잇따라 설립되어 1886년에는 22개 방적공장, 약 8만추에 이르게 되었으며, 1887년에는 교토 면사직물회사와 오사카직포회사가 설립되었고, 1890년에는 가나킨 제직회사가 설립되었다.

당초에는 자급화를 위하여 관영, 민영의 구별없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 면방업체들은 1891년에 국내 면사생산량이 26,000톤에 달해 비로소 수입량을 웃돌게 되었으며, 1894년에는 방적업의 규모가 45개 회사, 53만추에 이르러 1890년대 말에는 면사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게 되었고, 곧이어 면포도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일본의 면방공업은 황금시대의 서막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18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영국과 각종 섬유제품의 무역거래를 하면서 그간 거래해 오던 우리나라의 마모, 면포의 수입을 점차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1870~1872년경부터는 오히려 대마도를 중개무역지로 하여 점차 우리나라에 영국산 광목을 팔기 시작하였다. 1872년 서울에 영국산 광목이 처음 등장한 이래, 일본은 미쓰이물산회사를 비롯한 일본 상인들을 앞장 세워 면직물을 대거 수입하여 조선시장을 급속히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상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나라와 일본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청나라는 자국에서 생산된 각종 고

급 견직물과 영국 및 인도산 면제품들이 주요 상품이었고, 일본도 초기에는 영국상품을 중개 수출하였으므로 1889년까지는 비록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일본 상인의 활동이 더 활발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청나라보다 많았으며, 1890년부터는 청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면사를 생산하면서 점차 품질에도 자신이 생기게 되자 1893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면사를 본격적으로 수출하여 2년만에 영국제와 인도제 면사를 누르고 조선 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표 1> 대 청·일 수입 무역구조의 추이(인천)

(단위 : 1,000달러)

연 도	합 계		청 국		일 본	
	금 액	%	금 액	%	금 액	%
1885	970	100.0	243	25.1	727	74.9
1886	1,349	100.0	407	30.2	942	69.8
1887	1,468	100.0	641	43.7	827	56.3
1888	1,685	100.0	636	37.7	1,049	62.2
1889	1,843	100.0	729	39.6	1,114	60.4
1890	2,572	100.0	1,313	51.0	1,259	49.0
1891	3,164	100.0	1,738	54.9	1,426	45.1
1892	3,040	100.0	1,716	56.4	1,324	43.6

<표 2>를 보면 면사의 수입에 있어서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895년에 이미 우리 나라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4년후인 18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면사수입량이 5배로 급증하면서 면사수입의 9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무렵 우리나라 면방적은 수공업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특히 실을 뽑는 공정이 매우 비능률적이었으므로 양사 또는 서양사로 불리는 가늘고 곱게 기계로 뽑은 수입면사가 농촌의 많은 일손을 덜어주고 천을 짜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짜인 천도 깨끗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었으므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짐작된다.

<표 2> 주요국으로부터의 면사 수입구조 추이

(단위 : 担, 円)

연 도	합 계		영 국		인도 및 청국		일 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895	9,493	287,754 (100.0)	955	39,480 (13.7)	189	5,529 (1.9)	8,349	242,745(84.4) (84.4)
1896	10,273	304,622 (100.0)	895	38,521 (12.6)	435	14,280 (4.7)	8,943	251,821 (82.7)
1897	19,135	589,698 (100.0)	1,199	50,785 (8.6)	15	480 (0.1)	17,921	538,433 (91.3)
1898	33,325	934,441 (100.0)	1,518	64,751 (6.9)	75	1,940 (0.2)	31,732	867,750 (92.9)
1899	42,594	1,178,565 (100.0)	1,221	50,761 (4.3)	-	- (-)	41,373	1,127,804 (95.3)

[주]: (1) ()안은 구성비임, (2) 担 : ‘담’이라고 읽으며, 짐이라는 뜻임

조선조 말 우리나라에 수입된 주요 면직물은 옥양목생지, 표백옥양목, 소 폭 표백면포, 한랭사, 내광목(□廣木 : 인도면포 · 천축포) 등이 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옥양목생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과 일본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나 청·일전쟁과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정치·경제에서도 우리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영국을 앞지르게 되었다.

<표 3>을 검토해 보면 청·일전쟁이 있었던 1894년에는 총수입액 174만엔 중 97%가 영국제품이고 일본제품은 3%에 불과하였으나, 일본 제품은 매년 급증하여 노·일전쟁이 끝난 1906년에는 마침내 영국을 앞지르게 되면서 1910년에는 영국의 170만엔 보다 60% 많은 275만엔을 올려 우리나라 시장으로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부터 1910년까지 17년 동안 옥양목생지의 수입액은 2.6배로 급증하였으나 영국제품은 1905년에 327만엔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200만엔 수준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큰 변동이 없는 데 비하여 일본은 1894년에 비하여 1910년에는 57.5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1894년에 가나킨(金口 : 옥양목) 제직회사(그후, 동양방직회사에 합병)의 제품을 수출토록 하였고, 1897년에는 면포상 5명으로 하여금 공성사(共盛社)를 설립케하여 오사카방직회사(그후 동양방직회사에 합병)와 특약점을 체결하여 이 회사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케 하였으며, 또 1905년에는 미에방직회사가 미쓰이물산회사 및 다까세(高瀬)상점과 특약점을 체결하고 수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19965년에는 이들 3사가 한국시장에 한하여 옥양목생지 판매동맹을 체결하여 상에이면포수출조합을 설립하고 공동 보졸르 취하면서 영국과 맞서서 경쟁하였다. 이 외에도 1906년 후지(富士)가스(gas)방직회사, 가내가후찌방직회사 및 와까야마 방직회사 등이 한국시장 진출에 가세하여 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표 3> 옥양목 생지의 수입량

(단위 : 수량 . . . 疋, 금액 . . . 円)

연 도	일 본		영 국		기 타		합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894	12,055	47,857	477,212	1,697,094	-	-	489,267	1,744,951
1895	31,187	120,706	706,704	2,600,746	-	-	739,891	2,721,452
1896	36,899	139,574	443,704	1,626,423	200	775	480,803	1,766,771
1897	76,717	194,574	639,518	2,374,368	400	1,580	716,635	2,670,523
1898	78,162	264,552	563,796	2,085,322	-	-	641,574	2,394,874
1899		288,736	555,599	2,067,727	180	688	633,941	2,357,151
1890	172,269	655,259	388,388	1,526,306	-	-	559,607	2,181,565
1901	190,392	746,632	512,472	2,140,329	-	-	7022,864	2,886,961
1902	192,882	744,772	442,108	1,873,690	-	-	634,930	2,618,462
1903	286,766	1,091,982	408,791	1,742,494	-	-	695,557	2,834,476
1904	281,405	1,117,845	570,536	2,499,440	-	-	851,941	3,617,285
1905	323,016	1,313,690	702,906	3,278,149	300	1,660	1,026,284	4,593,599
1906	318,142	1,425,251	282,656	1,393,626	180	846	600,978	2,819,523
1907	471,079	2,120,382	584,153	2,825,182	-	-	1,055,232	4,945,564
1908	458,808	2,148,443	430,949	2,140,949	10,851	51,394	900,608	4,430,782
1909	393,854	1,782,181	360,315	1,747,187	7,716	34,238	761,885	3,563,606
1910	591,231	2,752,455	349,360	1,723,713	2,189	10,121	942,781	4,486,289

옥양목생지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면포는 표백옥양목인데, 한국 사람은 예
 옛날부터 면포생지를 스스로 잣물에 삶거나 빠는 등 마전(표백)해서 사용하

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표백직물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표 4> 표백 옥양목의 수입액 추이

(단위 : 수량 · · · 疋, 금액 · · · 円)

연 도	일 본		중 국		기 타		합 계	
	필 수	금 액	필 수	금 액	필 수	금 액	필 수	금 액
1894	-	-	4,251	12,520	-	-	4,251	12,520
1895	-	-	7,524	30,229	-	-	7,521	30,229
1896	31	121	5,445	21,768	-	-	5,476	21,889
1897	73	270	12,055	50,504	-	-	12,128	50,774
1898	21	89	27,174	117,208	-	-	27,197	117,297
1899	6	24	35,473	148,333	-	-	35,479	148,357
1900	50	200	33,473	149,464	-	-	33,528	149,664
1901	79	168	79,238	377,895	-	-	79,317	378,063
1902	11	33	81,904	378,002	-	-	81,915	378,035
1903	417	851	138,861	624,999	-	-	134,278	625,850
1904	1,509	3,656	147,876	679,580	-	-	149,385	683,238
1905	848	3,617	231,230	1,145,013	-	-	232,078	1,148,630
1906	1,768	8,277	144,611	753,007	-	-	146,379	761,248
1907	690	2,704	254,459	1,263,588	-	-	255,149	1,266,292
1908	4,650	23,019	290,400	1,500,095	237	1,255	295,287	1,574,369
1909	3,185	16,224	286,418	1,477,331	28	143	289,631	1,493,698
1910	36,115	165,464	292,370	1,509,650	183	984	328,668	1,676,098

<표 4>를 보면 1895년까지만 해도 영국제품의 독무대였으며, 1896년부터 일본제품이 수입되기 시작하지만 그 수량은 극히 미미하였는데, 노·일전쟁이 시작되는 19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10년에 16만5천엔으로 급증하지만 영국제품은 1910년에 150만엔을 차지함으로써 총수입액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제품은 10%에 불과하였다.

천축포라고도 하는 내광목의 경우에도 <표 5>와 같이 1895년까지는 영국제품의 독무대였으나 1896년부터 우리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한 일본은 1898년부터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1910년에는 총 307,277엔 수입에서 일본이 98.8%에 해당하는 303,499엔을 우리나라에 수출함으로써 내광목 시장을 독점하였다.

<표 5> 내광목 수입액 추이

(단위 : 수량 · · · 疋, 금액 · · · 円)

연 도	일 본		중 국		기 타		합 계	
	필 수	금 액	필 수	금 액	필 수	금 액	필 수	금 액
1893	-	-	601	1,053	-	-	601	1,053
1894	-	-	1,797	4,071	-	-	1,797	4,071
1895	-	-	2,882	6,537	-	-	2,882	6,537
1896	1,211	2,719	1,660	4,177	-	-	2,871	6,896
1897	120	241	709	1,693	-	-	829	1,934
1898	2,949	6,143	934	2,104	-	-	3,883	8,247
1899	8,780	18,116	1,115	2,532	-	-	9,895	20,648
1900	31,149	68,457	5,285	13,151	-	-	36,434	81,608
1901	9,459	20,836	20,339	45,599	-	-	29,798	66,435

1902	9,673	22,277	9,098	18,567	-	-	18,771	40,844
1903	50,387	112,284	253	893	-	-	50,640	113,177
1904	35,912	89,750	589	1,609	-	-	36,501	91,359
1905	46,770	131,418	4,073	10,271	-	-	50,843	141,689
1906	99,469	291,689	1,100	4,164	-	-	100,569	295,853
1907	91,771	226,201	21,244	56,805	-	-	113,015	283,006
1908	124,373	274,861	278	674	336	336	124,800	257,871
1909	85,012	184,166	4,898	11,709	65	65	89,936	195,940
1910	120,134	303,499	1,478	3,718	60	60	121,647	307,277

<표 6> 소폭 표백면포의 수입액

(단위 : 수량 · · · 疋, 금액 · · · 円)

연 도	수 량	금 액	연 도	수 량	금 액
1892	164,826	80,337	1902	658,462	640,732
1893	123,280	64,912	1903	604,753	583,805
1894	204,774	137,356	1904	1,148,683	1,180,500
1895	994,879	792,249	1905	1,901,298	1,987,621
1896	725,891	644,671	1906	1,297,771	1,332,362
1897	943,989	909,592	1907	1,668,075	1,671,269
1898	813,822	789,836	1908	1,133,530	1,183,184
1999	579,683	716,893	1909	848,053	861,699
1900	751,232	720,527	1910	1,060,102	1,068,973
1901	909,911	862,721	1911	1,331,598	1,435,153

소폭 표백면포의 수입은 <표 6>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1905년에 약

200만엔을 수입하여 최고치를 보였으나 광폭의 백색면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점차 떨어져 갔다. 참고로 이 무렵의 물가를 보면 1809년에는 백면포 4필=백저포 2.5필=쌀 1석으로 거래되었는데, 1872년에는 무명베 1필 =6량, 쌀 1석 10량으로 거래되었다. 그렇다면 1809년에는 백면포 1필이 1/4석이었으며, 1872년에는 무명베 1필이 6/10석, 즉 3/5석이 되는데 1/4석=5/20석, 3/5석=12/20석이 되므로 1809년의 백면포와 1872년의 무명베 1필 값이 1809년의 백면포 1필 값의 2.4배가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 공산품 값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60여년 후에 면직물 값이 2.4배로 올랐다는 것은 수입제품의 규격, 품질 또는 수입 과정에 있어서의 높은 이윤때문이거나 섬유산업이 그동안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쇠퇴하여 귀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이렇게 면직물이 귀하던 시기에 밀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수입 면직물은 울이 굵고 폭이 좁은 우리의 수직 무명보다 울리 가늘고, 고르면서 폭이 넓어 날개 돌힌듯이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신제품이 되었으며, 반면에 국산 면직물은 1872년에 1필 6량하던 무명베가 1876년에는 2필에 1량 2~4돈으로까지 폭락하는 사례마저 있어 심한 타격을 받을 때도 있었다.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일본 상인들은 더욱 대담하게 우리나라 소비시장을 파고 들어오면서 일제 면사, 면직물 등 각종 공산품을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1882~1886년 5년간에 미·영·이·노·불 등 구미 선진 제국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어 이네들의 외교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서구의 과학기술 등 문물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공산품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청나라

상인 및 일본 상인의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내정에 깊이 개입하여 서서히 행정 권한을 접수하여 1905년 한·일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정의 정치, 외교, 치안, 군사 등 대부분의 행정권을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정은 실속없는 겉모양만 남게되어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에 조인함으로써 1392~1910년간의 519년에 이르는 조선조 시대는 막을 내렸다.

1876년 한·일수호조약으로부터 1905년 한·일을사보호조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적 문호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청국의 제도를 도입 참작하여 정부 조직 및 기구를 대폭 개편하고, 신식기계 학습을 위해 김윤식 등 유학생을 선발하여 청나라에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케 하기도 하고,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보내어 일본의 새로운 행정, 교육, 군사제도 등을 견학케 함으로써 국제 정세에 따른 개화정책의 도입을 구상하게 되었다.

1882년에는 양반의 상업 종사와 상민의 학교 입학을 허가하였으며, 혜상공국을 신설하고, 기기국을 통해 농상·직조 등 각종 근대적 생산기관을 개설,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잠상공사를 설립하여 잠업을 육성하는 한편 의복제조를 개혁하는 등 계속해서 개방체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면서 수입섬유상품에 대응하여 섬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화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1882년에 발생한 임오군란과 이로 인하여 일본에게 지불한 손해배상, 1884년 개화당이 혁신정부를 세우려던 갑신정변과 이로 인한 일본의 손해배상, 1885년 우리나라 주재 청·일 양군의 철수에 관한 천진조약 등 연이은 내란과 이와 관련된 청·일과의 마찰과 사사건건 청·일의 내정간섭, 기회있을 때마다 고삐를 조여오는 일본의 노골적인 압박과 극심한 국력 쇠퇴로 인한 정부의 무기력 등으로 그간 시도

한 개화정책을 빚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청·일의 소비시장으로 깊게 깊게 빠져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전 수입품시장은 1894년 청일전쟁을 치르고 나면서부터 종래의 시장점유율이 청국 90%, 일본 10%이던 것이 청국 30%, 일본 70%로 역전되었고, 1910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청국 10%, 일본 90%로 일본의 독무대화하였다. 이와 같은 일·청간의 시장점유율의 변동은 그 당시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섬유제품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의 마직물, 면직물에 대한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가 수입하였던 섬유제품의 통계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면, 면직물, 면직사 등 면제품의 비중이 가장 커서 1910년의 총수입액 39,783천엔 중 전 섬유제품은 13,892천엔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면제품은 전 섬유제품 중 약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의 비중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입 금액에서 1901년에 14,696천엔이 1910년에는 39,783천엔으로 10년만에 1.7배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 섬유제품의 수입도 1901년에 8,367천엔이던 것이 1910년에는 13,892천엔으로 1.7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면방직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자 이에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할 원료인 면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자국의 농촌에 면작을 적극 장려하였으나 도저히 필요량을 확보할 수 없어 인도면, 중국면 및 미국면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국 내에서의 면화생산은 얼마 못가서 쇠퇴하여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표 7> 주요 직물의 수입구조 추이

(단위 : 1,000円)

연 도	총수입	면	면직물	면직사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
1901	14,696	222	5,052	1,217	1,231	505	140
	(100.0)	(1.5)	(34.4)	(8.3)	(8.4)	(3.4)	(1.0)
1902	13,541	159	4,322	1,043	849	565	64
	(100.0)	(1.2)	(31.9)	(7.7)	(6.3)	(4.2)	(0.5)
1903	18,219	177	4,809	964	822	610	59
	(100.0)	(1.0)	(26.4)	(5.3)	(4.5)	(3.3)	(0.3)
1904	26,805	415	6,302	1,592	1,025	419	85
	(100.0)	(1.5)	(23.5)	(5.9)	(3.8)	(1.7)	(0.3)
1905	31,960	471	9,063	2,361	1,187	1,005	166
	(100.0)	(1.5)	(28.4)	(7.4)	(3.7)	(3.1)	(0.5)
1906	29,654	313	6,287	1,583	708	817	152
	(100.0)	(1.1)	(21.2)	(5.4)	(2.4)	(2.8)	(0.5)
1907	41,436	405	9,434	2,671	1,372	996	180
	(100.0)	(1.0)	(22.8)	(6.4)	(3.3)	(2.4)	(0.4)
1908	41,026	393	8,883	2,027	1,473	1,650	220
	(100.0)	(1.0)	(21.7)	(4.9)	(3.6)	(4.0)	(0.5)
1909	36,649	371	7,586	1,289	1,244	1,530	249
	(100.0)	(1.0)	(20.7)	(3.5)	(3.4)	(4.2)	(0.7)
1910	39,783	368	9,301	1,807	1,085	906	425
	(100.0)	(0.9)	(23.4)	(4.5)	(2.7)	(2.3)	(1.1)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을 공산품의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원료인 누에고치, 면화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기지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국토지농산조사와 한국잠업조사를 실시하였고, 면화생산을 위해서는 1904년에 미국의 육지면 재배를 시험한 결과 성공하자 곧 면화재배협회를 조직하고 증산운동을 시작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자원 기지화를 추진하였다. 면화재배협회의 설립취지를 보면,

“ . . . 조선은 일본에 인접한 곳으로 운송교통이 편리하고 면화재배의 적지이다. 미국산 면화를 재배 장려하고 품질개량과 증산을 시도한다면 일본면업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족하다. 조선을 면화의 공급원으로 삼는다면 일본면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먼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가격 및 운임이 저렴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잇점외에도 해외시장 가격변동의 충격을 피할 수 있고, 일본면업이 독립적 안정기반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있다. . . . ”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한·일합방이 되기 이전에 조선내 각 도에 권업모범장과 지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기후, 토양 조건에서 재배시험을 마치고 합방에 의한 강제 점령이 성사되자마자 면작 장려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합방된 1910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조면 전의 실면과 조면의 수입실적은 <표 8>과 같다. 또한 육지면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재배자에게 저리자금을 전대해 주는 한국면화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거금을 방출하였다. 합방된 1910년까지는 본격적인 증산계획의 준비기간에 불과하여 대일 수출량도 아직 적고, 조면시설도 부족하여 상당량이 실면(조면 전의 씨가 들어 있는 면화)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표 8> 대일 면화 수출실적 추이

(단위 : 組, 円)

연 도	합 계		실 면		조 면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899	108	968	108	968	-	-
1900	-	-	-	-	-	-
1901	4,677	4,677	727	4,677	-	-
1902	57,894	47,894	11,274	57,894	-	-
1903	30,178	172,098	30,070	169,410	108	2,688
1904	31,235	194,056	30,979	187,771	256	6,285
1905	10,708	60,974	10,697	60,741	11	233
1906	11,528	89,380	10,904	75,909	624	13,571
1907	5,975	62,255	4,397	29,961	1,578	32,564
1908	7,583	102,033	3,158	16,756	4,425	85,277
1909	31,648	269,390	24,620	137,781	7,028	131,609
1910	24,136	290,744	13,426	72,883	10,710	217,861

일본 상품이 파도와 같이 밀고 들어와 일본산 면직물이 국내 섬유시장을 범람하게 되자 국내 유지들은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키면서 공장건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1897년 처음으로 안경수에 의하여 반관반민의 형태로 민족자본에 의한 대한직조공장을 설립하고, 일제 면제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이 회사를 모범공장으로 하여 국내 기술자를 양성하고 면직공장을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정세가 여의치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말았다.

1898년에는 김익승이 주동이 되어 정부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을 모아 일본인 기사를 초빙하여 직조기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기업적인 이윤도 도모하는 직조권업장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0년에 한성직조학교로 바꾸게 되어 남녀 학생들이 실제로 직조를 하었다고 한다.

1899년에 설립된 종로직조사는 일본 상인들이 면포 수입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인들이 수입면포 구입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면제품을 국내 공장에 생산하고자 종로의 백목전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으며, 개업 당초의 생산량은 매일 70여척이었다고 한다.

1901년에는 일본에서 제직기술을 습득한 기사를 채용하고 소폭직기 50대, 광폭직기 10 규모의 한성제직회사가 설립되었고, 1902년에는 전래의 면직공장 김덕창직물공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구식 족담기 58대, 수직기 11대 등을 도입하여 근대식 공장으로 개편되었다. 1년 후 증자하였으나 규모의 영세성과 대량 유입되는 일제 면포로 약전고투하면서도 1919년 동양면직주식회사로 발전하였다.

1904년에는 윤치호에 의하여 한영서원이 설립되면서 실습장으로서 직조공장이 병설되었다. 이 공장은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 조달을 위하여 제품이 판매되었는 품질이 우수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이 후 주식회사 송고실업장으로 발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개량된 족담기 11대, 직공 20명이 되는 랑대호의 면직공장, 족담기 6대, 수직기 3대, 직공 12명이 되는 최규익의 면직공장, 노홍석의 직조공장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직공 10~30명인 영세규모의 공장들이 서울시내 광희동 주변에 밀집해 있으면서 수입 서양사를 주원료로 하여 면직물을 생산하였다.

이 당시의 1911년에 서울의 광희동에 몰려있던 많은 수공업자들이 합동하여 경성직유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동력을 이용하여 허리띠, 염낭끈, 분합대, 주머니끈, 데님 등을 생산하는데 조선인의 직조공장으로서는 첫 주식회사였다. 이는 후에 경성방직주식회사의 모체가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열기를 타고 수입직기가 연달아 도입되자 직기 국산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 당시 전통적인 가내수공업 직기의 제작능력은 1필[폭:7촌, 길이:47척]을 생산하는 데 25일이 걸렸는데, 수입직기는(직물폭:1척 6촌) 1대당 1일 70~80척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신학문을 배운 이여점, 이태진 이인기 등 여러분에 의하여 역직기 국산화연구가 시작되었다. 불굴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 수입직기의 성능에는 못미치지만 1일 40척의 생산능력을 지닌 국산 역직기가 충주의 이태호씨에 의해 가동됨으로써 섬유기계 국산화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다.

1907년을 전후해서는 일본의 동양방직회사가 영국제 역직기로 시설을 교체하여 1대당 1일 350~400척을 생산하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시장을 파고 들어오자 충북 옥천지방의 민동식, 김성진씨가 중심이 되어 1일 생산능력이 300척이 되는 개량 역직기를 제작해 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식민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면면히 이어온 조선 섬유산업에 대한 지역별 면제품의 성가를 보면 나주, 광진, 남평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라세목, 선산, 의성, 진주, 통영 등에서 나오는 경상목, 해주, 황주 등에서 나는 황해목 등이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고가품이었다.

마직물에 있어서도 호남세저, 관북세포, 충청모시, 경상포 등이 유명하였으며, 견직물에 있어서는 관서명주, 평안명주, 공주반주, 대구광견·생초, 강화반포, 철원명주 등이 정평있는 고가품이었다.

면직물에 있어서 전라세목 옷감은 필당 중량이 200~300량(7.5~11.25kg)정도

의 부드럽고 하늘거리는 고급품이었고, 경상목 옷감은 필다아 중량이 400~600량(15~22.5kg)정도의 것으로 바닥이 두껍고 울이 굵은 질박한 대중품으로서 양은 많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경상도 무명이 서민 소비시장에서 서양목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1910년까지 독점적인 지배상품의 자리를 지켜왔다.